

보성군, 자두·살구 결합 '플럼코트' 첫 출하

새콤달콤한 맛...외국산 보다 크고 당도 높아 농촌진흥청 개발...군,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

자두와 살구를 결합해 새콤달콤한 맛과 향이 일품인 '플럼코트'가 보성군에서 첫 선을 보였다.

보성군이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보성군이 역점 육성하는 새로운 소득작목 플럼코트가 처음 출하됐다.

플럼코트는 자두를 의미하는 플럼(Plum)과 살구를 뜻하는 에프리카트(Apricot)의 합성어로 살구와 자두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품종이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전남도 공모사업인 '품목 생산자 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15농가(5.2ha)가 법인 형태로 플럼코트 재배에 뛰어 들었다.

3년차 묘목으로 플럼코트 재배를 시작한 보성군 농가들은 올해부터 상품성을 갖춘 플럼코트를 처음 출하하게 됐다.

외국산 플럼코트는 과실 1개당 중량이 40~60g인데 비해 국내에서 개발한 플럼코트는 80~120g으로 약 3배 무겁다. 당도 역시 14~16 브릭스로 외국 품종(12~12.5 브릭스)에 비해 높다.

살구의 달콤함과 자두의 향기로운 과즙이 어우러져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비타민 A와 C,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다른 과일에 비해 월등하다.

아직 많은 생산량은 아니지만 지난 19일 첫 출하(46박스)를 시작으로 올해 4t 가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정안기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과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작물을 도입해 지역에 맞는 작목을 육성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년차 묘목으로 플럼코트 재배를 시작한 보성군 재배농가들은 올해부터 상품성을 갖춘 플럼코트를 출하하는데 성공했다. <보성군 제공>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고흥군, 부모 가업 잇는 청년 지원한다

군, 농업인 등 30명 선정

고흥군은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에서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인 구문제 극복사업에 공모해 사업비 7억 1000만원을 확보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사업 성과를 분석해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며 "고령화가 심화하는 지역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비닐하우스나 ICT 융복합 등 각종 농업 시설물 설치·개보수, 어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매,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점포 리모델링과

홍보 물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고흥군은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에서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인구문제 극복사업에 공모해 사업비 7억 1000만원을 확보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사업 성과를 분석해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며 "고령화가 심화하는 지역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비닐하우스나 ICT 융복합 등 각종 농업 시설물 설치·개보수, 어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매,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점포 리모델링과

/고흥=주각중 기자 gjju@



농어촌 지역 초·중학생 대상 통학비 지원 구례군-구례교육청 '에듀택시' 운영 협약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이 지난 21일 구례교육지원청에서 '에듀택시'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에듀택시는 농어촌 읍·면 지역 거주 초·중학교 학생 중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하고, 집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등 통학이 불편한 학생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에듀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며 통학에 불

편을 겪고 있는 구례군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비는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에듀택시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례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달 11일 가족 발레극 공연 '말뚝꾸러기 바냐' 무대 올릴

보성군이 다음달 11일 오후 7시30분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족 발레극 '말뚝꾸러기 바냐'를 선보인다.

말뚝꾸러기 바냐는 호기심 많은 말뚝꾸러기 양 바냐가 블랙캣 일당의 꼬임에 속아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사랑이야기를 다룬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냐와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책임감, 존중, 배려,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어떠한 난관도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또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르로 여겨졌던 발레를 쉽게 접하면서 발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자극적인 콘텐츠와 세대 별 취향에만 맞춰진 상업적 공연에서 벗어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사업비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된다.

공연 관련 문의사항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 옥과 '한우리에술단' 인기 최고 '광주시 레크리에이션대회' 웰빙상 수상 이어 하얼빈 초청 공연도

곡성군 옥과면 한우리에술단이 '광주시 레크리에이션대회'에서 웰빙상을 받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우리에술단은 곡성군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소고 교실 멤버들로 구성됐는데, 현재 단원들의 평균 연령 79

세에 달한다.

2008년에 창단해 노인복지시설, 노인정 등을 찾아 재능기부를 실천하며 지역에 활기를 주고 있다.

한우리에술단(사진)은 지난해 10월에는 제35회 전국레크리에이션대회에서 '전

국웰빙댄스경연대회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한우리에술단은 또 올해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안중근 의거 110주년 행사에도 초청됐다.

한우리에술단을 10년 넘게 지도하고 있는 한순임 씨는 "바쁜 농사일과 집안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습해 준 단원들이 있기에 좋은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곡성군, 5대 벨트 관광열차 이용객 택시 요금 특별할인

곡성군은 관광택시연합회, 코레일관광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대 벨트 관광열차 전용 패스(오레일패스) 이용객에게 7월 1일부터 곡성 관광택시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5대 벨트 관광열차는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전라, 경전, 경의 등 7개 열차로, 지난 2월 코레일 측은 5대 벨트 관광열차 임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오레일패스를 출시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레일패스를 소지한 사람은 현재 6만원(3시간 기본)인 곡성 관광택시를 25% 할인된 금액인 4만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할인금액은 군과 관광택시연합회에서 부담하고, 코레일은 홈페이지에서 코스 추천과 상품 연계를 제공한다.

관광택시 운전자들은 수익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고향 곡성을 홍보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곡성군에는 코레일 관광열차 중 전라선 S-train이 운행되고 있어 지리적으로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 관광택시(1522-9053)와 코레일관광개발(1544-7755)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